



가 89-27 피어선빌딩 808호
23-7215

처부 2005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입니다.
.or.kr/2030에 있습니다.



* Mr. 2030 초록물결캠페인은 행정자치부 2005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club.ecofem.or.kr/2030>에 있습니다.

Mr. 2030 환경지킴이!



 여성환경연대

Mr. 2030

초록물결 캠페인이란?

여성환경연대가 2005년 10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환경의식, 환경문제 인식 및 실천 실태를 성별, 연령별 할당 추출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낮고,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으며, 환경실천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환경의식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환경의식과 환경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교육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분야의 취약계층인 20대와 30대 남성들을 위해 'Mr. 2030 초록물결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Mr. 2030 초록물결 캠페인'을 통해 젊은 남성의 소비문화를 바꾸고 자신의 소비가 가져올 환경적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실천을 할 수 있도록 20대, 30대 남성들의 특성에 맞는 환경실천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남성을 주제로 한 환경실천 캠페인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시민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녀가 함께 건강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남성 여러분의 큰 역할과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Mr. 2030이 가입할 만한 환경단체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http://www.greenchrist.org	인드라마생명공동체	http://www.indramang.org
녹색교통운동	http://www.greentransport.org	정토회	http://www.jungto.org
녹색미래	http://www.greenfuture.or.kr	제주참여환경연대	http://www.jejungo.net
녹색소비자연대	http://www.gcn.or.kr	카톨릭환경연대	http://www.cen.or.kr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꽃꽃세상을위한모임	http://www.flulssi.or.kr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	http://www.bandi.or.kr	한국내셔널트러스트	http://www.nationaltrust.or.kr
불교환경연대	http://www.budaeco.org	한살림	http://www.hansalim.or.kr
생태보전시민모임	http://www.ecoclub.or.kr	환경과공해연구회	http://www.ecoi.or.kr
수원환경운동센터	http://www.ecosuwon.org	환경운동연합	http://www.klem.or.kr
여성환경연대	http://www.ecofem.or.kr	환경정의	http://www.eco.or.kr
원불교천지보존회	http://www.boeun.org	그 외	

Mr. 2030이 알아야 할 환경 관련 기념일은?

2월 6일 세계 습지의 날(The World Wetland Day)	4월 29일 골프 없는 날(No Golf Day)
3월 16일 대구 패물사건	5월 31일 바다의 날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3월 28일 드라마일 해발전 사고	6월 17일 사막화 방지의 날
4월 4일 종이 안 쓰는 날(No Paper Day)	9월 16일 오존층 보호의 날
4월 5일 식목일	10월 16일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The Earth Day)	11월 22일 아무 것도 사지 않는 날(Buy Nothing Day)
4월 26일 체르노빌 핵참사	12월 29일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

Mr. 2030이 읽어야 할 우리 시대의 환경고전 12권은?

가이아 제임스 러브록 지음/홍희철 옮김/갈라파고스/2004년 3월/12,800원
 간디의 물레 김중철 지음/녹색평론사/1999년 7월/8,000원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더글러스미스 지음/김중철, 이반 옮김/녹색평론사/2002년 12월/7,000원
 나무를 심는 사람들 장 지오노 지음/김경은 옮김/두레/1995년 6월/6,500원
 모래 군(郡)의 열두발 알도 레오폴드 지음/송명규 옮김/따님/2000년 4월/12,000원
 성장을 멈춰라! 이반 일리히 지음/이한 옮김/미토/2004년 6월/10,000원
 오래된 미래 헬렌 노르베리 호지 지음/김중철 옮김/녹색평론사/2003년 12월/8,000원
 우리들의 하느님 권정성 지음/녹색평론사/1996년 12월/6,000원
 월튼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지음/강승영 옮김/이레/2004년 1월/9,800원
 작은 것이 아름답다 E.F. 슈마허 지음/이상호 옮김/문예출판사/2002년 3월/10,000원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지음/김은령 옮김/예코리브르/2002년 4월/15,000원
 한살림 선언문 장일순, 박재일, 최혜성, 김지하 지음, 최혜성 대표 집필/한살림/1989년

Are you green?

자연에 대한 매너를 아는 남자,

당신은 E형 남자!

지구를 사랑하는 남자의 7가지 습관

- 1 나는 일회용 컵 대신에 개인 컵을 쓴다.
- 2 나는 쓰지 않는 모니터는 끈다
- 3 나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
- 4 나는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를 직접 분리 배출한다.
- 5 나는 얼리어답터가 되지 않는다.
- 6 나는 나만의 화초를 가꾼다.
- 7 나는 환경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에 참여한다.

1 나는 일회용컵 대신에 개인컵을 쓴다.

내가 하루 소비하는 일회용품은 얼마일까?

일회용 컵 하나 분해에 필요한 시간은 20년 이상, 일회용 칫솔은 100년 이상, 알루미늄캔, 플라스틱 병은 500년 이상 걸린다. 더구나 종이컵과 같은 패스트푸드 일회용품에는 테프론 독성물질(PFOA)이 들어 있는데 인체에 다량 축적되면 간암, 태아기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사먹는 테이크아웃 커피, 자판기 커피에서 나오는 일회용 컵. 이제는 나만의 개인컵을 사용한다.

2 나는 쓰지 않는 모니터는 끈다.

10분 모니터 OFF / 30분 대기모드 / 1시간 전원 OFF

컴퓨터 모니터는 30Hz정도의 정전기가 발생하여 장시간 작업 시 피로감, 시력감퇴, 두통, 나른함, 기억력 감퇴 등을 유발시킨다. 또한 10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꺼두면 연간 25,600원의 절감효과와 35.84TC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가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고 가급적 플러그까지 뽑는다면 나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TV는 필요한 시간만 시청하고 습관적으로 켜놓지 않는다.

3 나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버스 두 정거장 이하, 지하철 한 정거장 이하의 가까운 거리는 걷는다.

4 나는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를 직접 분리 배출한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칠십 평생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55톤이며, 매일 1킬로그램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며 54킬로그램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쓰레기는 가급적 만들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만들 시에는 철저히 분리하여 직접 배출한다.

5 나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가 되지 않는다.

휴대폰, PC, PDA,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전자제품의 교체가 유행처럼 번져 가고, 교체 시기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빨리 신제품을 사서 써 보아야만 적성이 풀리는 소비자들! 전자산업의 육성자라며 각광을 받기도 한다. 잦은 교체는 과소비를 조장하여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원낭비, 환경오염을 가져온다.

6 나는 나만의 화초를 가꾼다.

사무실이나 가정에 내 식물을 정해 키워본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실내 공기정화와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까지 알게 하는 좋은 습관이다.

7 나는 환경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에 참여한다.

마음에 드는 환경단체에 가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에 참여한다. 주변의 사람에게도 함께 할 것을 권하여 생각을 전한다.

나의 환경지수는?

가 정 생 활		예	아니오
먹을거리	1 가능하면 외식하지 않는다		
	2 메뉴선택시 육식보다 채식식단과 채식음식을 선택한다		
	3 저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식품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4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일상습관	5 습관적으로 TV를 켜놓지 않는다		
	6 컴퓨터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켜다		
	7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다		
	8 면도, 양치질, 세수는 물을 받아 놓고 사용한다		
구 매	9 샴푸, 샤워젤 대신 비누를 쓴다		
	10 면도기,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다		
	11 유리병, 캔 등에 담배꽂초나 이물질을 넣지 않는다		
	12 짬뽕, 짜장면 등 길거리 음식은 이용한다		
쓰 레 기	13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		
	14 캔음료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병음료를 구매한다		
	15 충동구매하지 않고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		
	16 핸드폰, PC 등 전자제품은 신제품 구입보다 고쳐 오래 사용한다		
직 장 생 활	17 환경마크와 재활용마크가 표시된 상품을 골라 산다		
	18 대형마트보다는 되도록 가까운 상점이나 동네시장을 이용한다		
	19 쇼핑할 때는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20 녹색가게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		
사무실	21 같은 조건이라면 재생, 리필가능한 제품을 쓴다		
	22 일회용 건전지 대신 충전건전지를 쓴다		
	23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직접 분리배출에 참여한다		
직 장 생 활		예	아니오
일상습관	1 손수건을 휴대하여 사용한다		
	2 컴퓨터를 한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끈다		
	3 이면지를 활용하여 재사용한다		
	4 프린트잉크나 카트리지는 재생용품을 쓴다		
교 통	5 고장난 전자제품 및 사무용품은 수리해서 다시 쓴다		
	6 종이컵 대신 개인용 컵을 이용한다		
	7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며 겨울에는 내복을 입는다		
	8 4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다		
교 통	9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10 불가피하게 자가용 이용시 급제동, 급출발을 하지 않는다		

사 회 생 활		예	아니오
환경관련	1 집이나 직장 등에 내가 키우는 화분이 있다		
	2 환경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본다		
	3 환경실천을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한다		
	4 환경단체를 후원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다		

예 10점, 아니오 0점

300~370점 : 그린맨
200~290점 : 화이트맨
100~190점 : 옐로우맨
90점 이하 : 레드맨

그린맨 :

생활 속에서 녹색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당신은 지구를 사랑하는 그린맨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르고 여성 동료들의 찬사가 함께 하겠군요. 지금의 녹색습관을 유지하고 주변분에게도 생각과 실천을 전할 수 있는 녹색 전도사가 되세요.

화이트맨 :

당신은 환경문제와 실천방법에 대해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조금 부족하시군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 작은 움직임이 병들어 가는 지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옐로우맨 :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바빠서 여유가 없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을 쉽게 찾게 되지요. 하지만 그 편리함이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고 지구와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불편함이 주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레드맨 :

당신에게는 자연으로부터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너무 바빠서 살아오면서 당신의 행동이 생태 파괴, 동식물의 멸종, 환경성 질환을 가져오고 그 결과 이 지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지금부터 많이 노력해 주세요.

Mr. 20의 하루

06:30

AM

그는 일어났다.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 비누로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고 나왔다. 어머니께서 아침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는 된장국에 현미잡곡밥을 맛있게 먹었다. 날이 차가워 내복을 입고 장갑도 준비했다.

08:00

인라인스케이트를 신고 집을 나왔다. 인라인을 타고 30여분을 달려 테헤란로에 있는 사무실에 도착했다.

08:40

사무실에 도착하여 신발을 갈아 신고 세수를 한 뒤 수건으로 닦았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며 사무실로 온 신문을 읽었다. 동료들이 한 돌씩 온다.

09:00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한다. 이메일을 체크하고 답장을 보내면서 일정을 수첩에 기록했다. 오늘은 여성환경연대에서 여는 촛불캠페인이 있는 날이다. 만날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시간과 장소를 확인했다.

12:00

점심시간이다. 사무실 직원 모두가 컴퓨터와 불을 끄고 나간다. 오늘 점심은 특별히 채식식당으로 갔다. 자신이 먹고 싶은 만큼 덜어먹고 유기농채소를 깨끗이 씻어놓은 곳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않아도 되어 일주일에만 한 번은 이용하고 있다. 식사가 끝나고 시간이 남아 존 로빈슨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를 읽었다.



03:00

PM

옆자리 김대리가 6개월만에 바꾼 핸드폰을 들고 자랑한다. 영어사전이 탑재되고 MP3기능과 게임기능이 강화된 가로본능 DMB폰이었다. 그는 3년째 같은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사용에 불편은 없다.

06:00

동료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빠져나간다. 그는 수첩에 내일업무를 메모하고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다. 자신 앞으로 온 우편물을 분리하고 불필요한 광고물을 보낸 두 곳에 전화를 해 앞으로 우편물을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사무실로 온 석간신문을 잠깐 훑어보고 사무실을 나왔다.

07:00

시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철판볶음밥으로 저녁을 먹으며 각자 근황과 내년에 대한 얘기를 했다. 여성환경연대가 하는 홍대 앞의 촛불카페를 갔다.

08:00

불을 끄고 촛불을 켜는 사이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했다. 나중에 결혼을 할 여자와 토끼같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좀 더 지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11:00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계시고 여동생은 인터넷을 하고 있다. 그는 세수를 하고 집안의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았다. 잠자리에 누워서 그는 눈덮인 겨울산행을 꿈꾸었다.



Mr.30의 하루

07:00 AM Mr.30은 아내보다 10분 일찍 눈을 떴다. 날씨가 쌀쌀했다. 오늘은 수요일, 그가 아침당반인 날이다. 그는 잠곡 한 컵과 오븐도시 두 컵, 그가 좋아하는 흑미 한 줌을 넣고 압력밥솥을 눌렀다. 그는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 면도와 세수를 하고 나왔다. 그가 현미잡곡밥과 김, 멸치볶음, 된장국으로 간단한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그의 아내는 반찬 두 가지를 담아 도시락을 썼다. 네 식구가 아침밥을 먹고 모두 내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08:00 그의 아내는 큰딸과 함께 유치원으로 향했고 그는 작은딸을 자전거에 태워 어린이집에 데려다주었다. 지하철역 입구에 자전거를 묶은 뒤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로 향했다.

09:00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와 화분에 물을 주었다. 감원자를 한 잔 마신 뒤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이메일을 먼저 체크했다. 그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분류하여 이면지를 활용한 종이에 메모해 놓았다. 날씨가 쌀쌀한 편이었으나 내복을 입고 와서 따뜻했다.

11:00 그는 오전 팀 회의 때 쓸 회의 자료를 양면복사하였다. 회의시간이 한 시간 정도 예상되어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회의장으로 갔다. 그의 사무실 동료들은 모두 개인업을 갖고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시간은 한 시간을 넘지 않았다.

12:00 동료들 몇 명이 근처 식당으로 나가고 대개는 휴게실에서 모여 함께 싸운 도시락을 먹는다. 도시락은 반찬 한 가지씩만 싸와도 금세 열 가지가 넘기 때문에 조미료에 실존난 직장인들에게는 인기 있는 만찬이 되고 있다. 식사 후 그는 동료들과 횡우석과 생명유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무실 주변 고공을 약 20분간 산책했다. 쌀쌀했지만 초겨울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었다.



03:00 PM 금연한지 일 년이 다되어가지만 오후 3시 무렵엔 몸이 나른하고 담배 생각이 나기 마련이다. 사무실 건물은 완전히 금연이기 때문에 흡연하는 동료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면 그도 담배생각이 굴뚝같다. 그는 이럴 때 주로 전화업무와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그래도 담배 생각이 날 때는 따뜻한 녹차와 유기농 건빵을 몇 개 먹는다.

06:00 오늘은 시간 내에 업무가 끝나서 무척 운이 좋은 날이다. 평소에는 야간업무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동료들도 컴퓨터 전원과 멀티탭 전원을 끈 후 함께 전등을 소등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문자메시지로 아내에게 자신의 이른 귀가를 알리고 집으로 왔다. 거리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있다. 그는 구세군 냄비에 천원을 넣고 전철을 타고 전철역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왔다.

08:00 저녁식사 후 아이들과 함께 산책 겸 동네 시장을 가기로 했다. 시장을 나서는 길에 아이들과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나와 아파트 입구에 있는 분리함에 분리배출하였다. 장바구니에 과일과 야채 몇 가지를 넣고 크리스마스 카드 재료를 사왔다. 토요일 오후엔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계획이다.

09:00 집에 돌아온 그는 손과 발을 씻고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공기놀이를 했다. 아내가 가장 잘하는데 오늘은 큰 딸의 실력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마고할미)를 읽었다. 내일이면 다른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10:00 두 아이가 잠들자 이제 부모만의 시간이 되었다. 둘은 촛불을 켜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창밖으로 유난히 밝은 달빛이 아름답게 눈꺼풀에 어른거른다. 그는 불을 끄고 든든 오디오의 플러그를 뽑고 잠을 청했다.

